

국힘 '뉴시티 특위' 구성...김포 서울편입 논의 본격화

위원장 조경태·부위원장 송석준 등 위원 16명 인선 김기현 "비수도권도 주민 뜻 모으면 '메가시티' 검토"

국민의힘은 6일 '메가시티 서울' 추진을 논의할 당 기구 명칭을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로 확정하고, 부위원장과 위원 15명 등 총 16명의 인선을 완료했다.

특히 이와 관련, 김기현 대표는 이날 비(非)수도권도 주민들이 원할 경우 메가시티 조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뉴시티 프로젝트 특위' 인선안을 의결했다.

부산 지역 5선 중진인 조경태 위원장과 함께 활동할 특위 부위원장에는 경기도당위원장이자 당 정책위 부의장인 재선의 송석준(경기 이천) 의원이 임명됐다.

현역 의원 중에서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인 한무경 의원과 윤창현 의원(대전 동구 당협위원장), 조은희(서울 서초갑) 의원, 유경준(서울 강남병) 의원, 홍석준(대구 달서갑) 의원, 비례대표 박대수·이웅 의원이 특위 위원으로 활동한다.

원의 위원에는 '김포 서울 편입'을 당 지도부에 건의한 재선 의원 출신 홍철호 경기 김포을 당협위원장, '구리 서울 편입'을 추진 중인 나태근 경기 구리시 당협위원장을 비롯해 김대남 국민의힘 경기도당 도시개발위원장, 안철수 의원 측근인 김도식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김기문 변호사(전 경기 광명을 당협위원장)가 포함됐다.

전문가 그룹에는 서울 강남구의회 의원을 지낸 이인화 도원건축사사무소 대표, 고영선 전 동명대학교 4차산업혁명연구센터장, 서울시 균형발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갑성 연세대 도시공학과 교수가 이름을 올렸다.

박정화 수석대변인은 "특위는 향후 필요에 따라 추가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메가시티를 '서울-부산-광주' 3각 축으로 논의한다는 한 언론 보도에 대해서 "빠른 얘기로 조금 더 봐야 할 것"이라며 "현재는 시민 요구가 있었던 김포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고 서울

인근에서 요구가 있는 경우 받아서 검토하는 것이라 수도권을 벗어나서 확장하는 것은 말씀드리기 이른 내용"이라고 말했다.

특별법 발의 시점에 대해서 "특위가 활동하면서 어떤 내용으로 어떤 지역을 대상으로 할지 논의해서 법안을 만들어야 하므로 좀 오래 걸릴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김기현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비수도권에서도 주민들이 뜻을 모아 지역별 거점 역할을 하는 메가시티를 키우겠다는 의지를 표명해오시면, 주민의 뜻을 존중해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포를 비롯한 서울 인근 지역을 합쳐 확장하는 '메가시티 서울' 구상이 수도권 집중을 심화하고 지방균형발전에 역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김 대표는 "김포의 서울 편입 문제는 수도권 비대화와 아무 관련이 없다"며 "오히려 수도권이라는 운동장에 불합리하게 그어진 금을 합리적으로 새로 고쳐 갖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주민을 위해 행정구역이 존재하는 것이지, 행정구역을 위해 주민이 존재하는 게 아니다"며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으로 결정하는 하향식에서 벗어나, 주민 의견이 우선되는 상향식으로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북쪽과 동쪽으로는 한강, 남쪽으로는 인천과 서울에 인접해 지금도 경기도의 외딴섬같이 존재하는 김포시를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경기도로 강제 편입한다는 민주당 발상은 자칫히 행정편의주의적"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세계 주요 도시들도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메가시티 개발을 적극 추진하는 만큼, 우리 당의 '뉴 시티 프로젝트'가 국토 균형발전은 물론 주민 편의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6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요한 "대통령과 가까운 분들에 결단 내려달라 전화했다"

"비례대표 30~40대로 내려가야"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6일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가 다 알지 않느냐.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 위원장은 이날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이렇게 말하면서 "어제 저녁에도 (그분들에게) 결단을 내리라고 전화했다"고 밝혔다.

그는 진행자가 '결단의 대상으로는 권성동·장제원 의원이나 김기현 대표가 떠오른다'고 하자 "그중에 한두 명만 결단을 내리면 (다른 사람들도) 따라오게 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을 사랑하면, 나라를 사랑하면, 대한민국 미래

가 걱정되면 결단을 내리라고" 강조했다.

인 위원장은 또 "세대교체도 하고, 나라에 희망이 생기려면 청년들이 들어가야 한다. 비례대표 나이를 내리는 것을 의도하지는 않겠다"며 "30~40대로 내려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지난 4일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나기 위해 부산에서 열린 토크콘서트에 '깜짝 참석'한 것에 대해 "사전에 연락을 여러 경로로 시도했는데 (이 전 대표가) 다 반대했다. 아버님을 통해서 했고 가족을 통해서 했다"며 "그렇게 만나려고 노력했는데 안 만나니까 할 수 없이 저 혼자 결정해서 부산을 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 위원장은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는 이 전 대표에 대해 "다 좋는데 전라도 말로 '거시기'한

것은, 영어를 구태어 안 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며 "나와 내 아들은 전라도에서 태어나 특별귀화해 100% 한국 사람이 됐는데 영어로, 마치 외국인 취급하듯이 해서 조금 섭섭했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와 유승민 전 의원의 신당 창당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런 그분들을 위한 것도 아니고 하물며 우리를 위한 일도 아니다"라며 "신당은 과거에 많이 실패했고 제가 보기엔 어려운 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말 (그 길을) 안 갔으면 좋겠고 말리고 싶다"며 "들어와서 차라리 문을 걸어 잠그고 우리에게 육할 것은 육하고 그게 통합 아니겠느냐. 제발 좀 그러지 말라, 이런 호소를 하겠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尹 "GTX 개통하면 수도권 30분 통행권 달성"

내년 3월 개통 준비 상황 점검

윤석열 대통령은 6일 경기도 화성 동탄역을 찾아 내년 3월 개통을 앞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GTX-A를 이용하면 수도권 30분 통행권이 달성돼 우리 도시 공간 구조가 변화하고 GTX 노선을 따라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가 생긴다"며 GTX가 가져올 사회경제적 변화의 이점을 강조했다. 대통령실이 전했다.

또 A 노선(수서역~화성 동탄역)이 일정을 앞당겨 내년 3월에 개통하고, B(인천대입구역~남양주 마석역)·C(양주 덕정역~수원역) 노선은 각각 내년 초와 연말에 착공하는 점을 긍정 평가했다.

현장에 동행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GTX A·B·C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기존 GTX 노선의 연장선과 새로운 GTX 사업들의 신설 추진 방안을 연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GTX 외에도 3개의 광역철도(8호선 별내선,

신안산선, 7호선 도봉산~역곡)를 개통해 수도권 동북부·서남부 이동시간을 최대 75%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8운 대통령은 이어 GTX 열차 안에서 동탄·인천·파주·서울 등 수도권 지역 주민 20여 명, 전문가와 함께 대화를 갖고 광역교통 문제 해법을 논의했다.

이날 일정은 지난주 민생 타운홀 형식으로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 참석에 이은 민생현장 행보의 일환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주요 GTX 노선 신설 및 연장에 대한 요구, 신도시 교통난 문제, 교통비 부담 등에 대한 현장 목소리도 나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윤 대통령 지지율 36.8%...2주 연속 상승세

리얼미터...부정평가 60.2%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2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6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여론조사기관인 여론조사 30일부터 이달 3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252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직전 조사(10월 23~27일)보다 1.1%포인트(p) 오른 36.8%로 집계됐다.

윤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는 최근 2주 연속 상승세(32.5%→35.7%→36.8%)를 나타내고 있다.

부정 평가는 1.7%p 내린 60.2%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7.0%p ↑)과 대전·세종·충청(4.3%p ↑), 서울(2.3%p ↑), 광주·전라(1.4%p ↑) 등에서 긍정 평가가 높아졌다. 연령대를 보면 60대(2.2%p ↑), 30대(2.1%p ↑), 20대(1.7%p ↑) 등에서 올랐고, 이념 성향별로는 보수층(3.1%p ↑)에서 상승했다.

이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다. 무선(97%)·유선(3%)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2.6%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함께하는 100년농협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국민은행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쿨!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비서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쿨! 바로 바로 확인까지 쿨!

올바른 POINT UP 카드

국내·외 전 가맹점에서 무제한 포인트 적립!
전 가맹점 최대%적립 + 생활밀착형 가맹점 추가 적립
전자금융 수수료 면제, 국제공항 라운지 무료이용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2201 (무배당)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할 수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숙박비·식비) 하루 10만원(임의상90일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특약가입시) 월5만원으로 만기시 80%환급 (매월변동가능, 공시이율 2022년 1월 기준)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한 환전·해외송금을 말하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362-8400~6 FAX. 062)362-8407

용산지점 062)526-0222~3
치평지점 062)381-8212~3
쌍촌지점 062)381-6551~2
외정지점 062)372-0421~3

유동지점 062)512-1984~5
동림지점 062)513-8521~3
운암지점 062)527-3295~6
운천지점 062)371-2772~3

유덕지점 062)373-3235~6
동운지점 062)528-2640~2
배틀지점 062)381-1971~2
상무동지점 062)372-3741~2

운암벽산지점 062)529-5335~6
빛고을로지점 062)531-1213~5
양동센트럴지점 062)361-4472~4
기아자동차지점 062)385-4977~8

동림하나로지점 062)531-7745~6
로컬푸드(시청) 062)364-8400
유덕하나로마트 062)373-3235
하나로마트동림점 062)511-2901~3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